



도선사 통수식. /서울시

## 고지대 사찰에 상수도 연결... 물복지 실현

서울시, 2014년부터 21곳에 설치 지하수 부족, 물 오염에 사용 어려워

서울시는 지하수·계곡물 등의 오염과 고갈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시내 21곳 고지대 사찰에 상수도 배수관을 연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고지대 사찰은 지하수와 계곡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계속된 가뭄으로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고 석회 성분이나 유해 유기물이 검출되는 등 물이 오염돼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또 급수모터 등 설비가 고장 나 지하수가 끓이는 때도 많아 사찰 거주자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지난 2014년부터 고지대

사찰 등에 수도물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서울 시내 21곳 사찰에 대한 준공을 마쳤다.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의 상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부설 구간 내에 사유지 15필지가 걸쳐 있어 시가 토지 소유주들을 만나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했다. 시는 북한산 중턱 해발 360m 높이까지 2.1km 길이의 배관과 펌프장 3개를 부설해 2017년 10월 공사를 완료했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2014년부터 고지대 사찰에 수도물 공급을 추진해 왔다"며 "서울시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건강하고 깨끗한 아리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기술연구원, 기술실증 대상 사업 선정

# IoT 기저귀·택배로봇 등 본격 연구

신기술접수소, 기술 227건 접수 서울시, 연간 100여억원 지원 총 64개 연구과제 수행 또는 완료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범 1년을 맞아 서울시민 450명을 대상으로 지난 2개월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사회문제 해결'이 꼽혔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서울기술연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도시사회문제 해결' (34.1%)을 꼽았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굴' (25.7%), '기술사업화 및 기술혁신 기업 성장지원' (25.0%) 순이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도시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R&D 예산 대폭 확충'과 '과학기술 혁신이슈 주도 및 종합조정 역할 강화'가 각각 1위, 2위에 올랐다.

연구원은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인 '신기술접수소'를 통해 민간기업의 혁신기술 227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28건을 기술실증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중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기저귀'가 포함돼 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주행하고 있다. /서울기술연구원

기저귀에 부착된 무선통신 단말기를 통해 배뇨 횟수, 기저귀 사용량, 교체시간 등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는 기술이다.

이를 이용하면 간병인들은 수차례 기저귀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어지고, 의료진은 수집된 자료를 배뇨훈련 등 환자 돌봄을 위한 기초자료로 쓸 수 있게 된다.

택배나 음식배달을 하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기술도 상암동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에서 실증에 들어간다. 소형 카트 형태의 배달로봇이 지정된 경로를 따라 자율주행해 물류를 이송하는 기술이다.

서울시의 실증사업비 지원 규모는 기업당 최대 5억원, 연간 총 100여억원이다. 연구원은 "자체 연구개발(R&D)을 통한 신기술 도입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도시인프라, 안전방재, 생활환경, 스마트도시, 미세먼지 등 5개 핵심

연구부문에 대해 총 64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교통공사, 서울연구원과 협업해 '미세먼지 차단 방진창 성능기준'과 '지하철 등 공공시설 내 미세먼지 집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 전역에 광범위하게 매설된 열수송관 전체를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기술도 개발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시민 삶과 직결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을 발굴하는 서울시의 기술분야 싱크탱크"라며 "올해는 신기술 접수소를 통해 민간 혁신기업의 기술을 선정하는 데 주력했다면 내년부터는 서울시정 모든 현장에서 기술 실증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서울시 주요 정책, 올해도 '따릉이' 1위

2019 서울시 10대뉴스 결과 올해 누적 회원 수 171만명 서울 시민 1명당 3번 이용



공공자전거 따릉이. /서울시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서울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투표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시민 투표'를 실시했다. 지난 25일간 15만132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는 서울시 주요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순위와 관계 없이 1인당 최대 3개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따릉이는 총 투표수 31만8268표 중 6.4%인 2만309표를 받았다. 따릉이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자전거 무인 대여 시스템이다. 올해 누적 회원 수 170만명을 돌파(총 171만명)했다. 대여건수도 3000만여건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1명당 따릉이를 3번 정도 이용한 셈이다.

2위를 차지한 정책은 '서울 어디서나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S-Net 구축' (6.2%·19만881표)이 차지했다. 시는 서울 전역에 총 4237km에 이르는 유·무선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 1만6330대를 추가 설치해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 제공할 계획이다.

3위는 가사·간병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가정 내 돌봄 걱정을 해결해 주는 돌봄SOS센터(1만7619표·5.5%)였다.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런 질병·사고로 긴급하게 가사·간병이 필요한 경우

부터 병원 동행, 형광등 교체, 청소·방역 같은 일상적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1만3972표·4.4%),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1만3105표·4.1%) 등 청년을 위한 정책이 다수 10위 안에 선정됐다.

이외에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복지 강화와 건강을 살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5.1%) ▲맑고 깨끗한 서울을 위한 '미세먼지 걱정없는 서울' (4.4%) ▲공공헌책방 '서울책보고' (4.1%)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박진영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이번 우리를 든든하게 한 2019 서울시 10대 뉴스 결과에 서울에서의 더 나은 삶의 변화를 원하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됐다"며 "내년에도 민생을 향한 다양한 맞춤형 정책으로 시민들이 서울의 변화를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인천시, 미세먼지 완화 숲 조성... 255억 투입

내년 도시숲 조성사업 25만7000㎡ 녹색공간 확보, 도시열섬현상 완화

인천시는 2020년도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길 등 50개소에 255억원을 투자, 25만7000㎡의 숲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색공간 확보와 도시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생활권 주변 18개소 1만㎡에 27억원의 사업비 투자로 명상숲(14개소), 옥상녹화(1개소), 나눔숲(1개소), 나눔길(2개소)을 조성하여 청소년, 주민, 사회적 배려계층 등 다양한 계층이 숲이 주는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주민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해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14개소에 44억원을 투자하여 쉼터, 녹지대 등을 조성하여 주민 녹색복지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인선 유휴부지 테마숲길 조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철도로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는 숲길 조성을 위해 2019년에 실시설계를 거쳐 2020년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등 미세



조감도(미추홀구 수인선 유휴부지 도시숲 길)



조감도(도시바람길 숲, 서구 가좌동)

/인천시

먼지 발생원 주변 주거지역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64억원의 사업비로 동구 인종로, 미추홀구 염전로, 남동구 남동공단, 강화군 강화일반산업단지 등 12개소 4만㎡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식물 자동화 관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가드볼을 남동, 부평, 주안 산업단지 등 11개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산업단지 미세먼지 차단숲과 더불어

어 산업단지 실내·외 공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시는 2020년도 역점 사업으로 도시바람길 숲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도시바람길 숲 조성은 생활 SOC사업으로 산림청 '도시바람길 숲' 공모에 선정,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해 2019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